

서울시민의 문화에 대한 인식과 문화예술 향수 수준

- 문화수요에 대한 정책적 관심 필요
- 시민의 문화예술 향수 정도
- 문화예술 향수에 대한 시민의 인식
- 문화예술 향수의 계층화와 함의

문화수요에 대한 정책적 관심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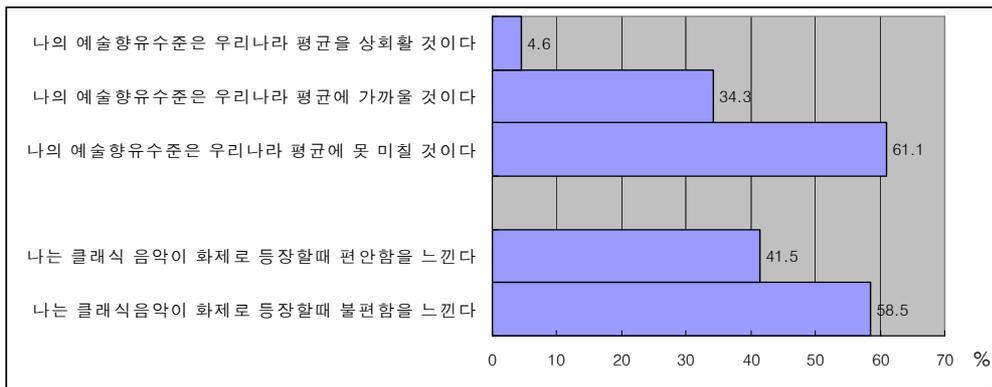
- 지금까지 문화에 대한 정책은 주로 문화 자원의 공급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왔음. 즉, 문화자원을 풍부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를 생산하는 부문과 문화활동이 이루어지는 시설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현재까지 문화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음. 이러한 정책의 바탕에는 문화 자원의 공급이 이루어지고 문화 시설이 있으면 문화수요가 창출될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음.
- 그러나 문화수요는 문화공급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문화향수 수준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문화공급이 수요와 괴리되는 현상을 볼 수 있음.
- 문화수요에 대한 관심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두는 것임. 문화수요에 대한 욕구의 파악은 문화에 대한 공공적인 지원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문화 자원의 생산을 풍부하게 하는 문화의 저변을 확충하는 것이며, 이것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도시적인 차원에서 문화도시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함.
- 따라서 시민들의 문화 수요에 대한 보다 절실한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어떠한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음. 본 고에서는 서울 시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과 향수 정도의 실태를 알아보하고자 함¹⁾.

1) 본 내용은 2004년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성인남녀 1,300명을 대상으로 한 「서울시민의 문화향수 실태 조사」의 자료를 분석한 것임. 조사는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 2.7%임.

문화예술 향수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 시민 자신이 인식하는 문화 향수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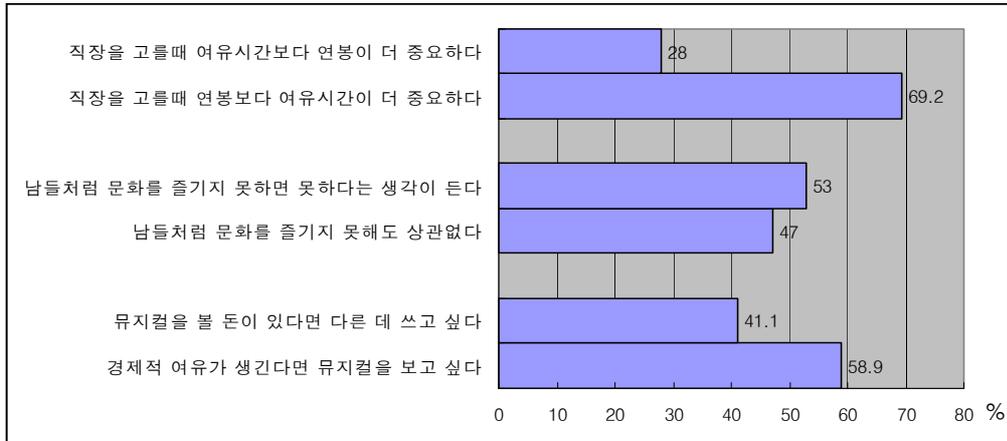
- 자기 자신의 문화향수 수준에 대해서, 우리나라 평균에 못 미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61.1%로 가장 많았음. 즉, 시민의 과반수 이상이 문화향수에 대해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고 있음.
- 또한 클래식 음악에 대해서 편안함보다는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이 더 많아 아직까지 순수 예술에 대한 거리감이 존재함. 일반적으로 순수예술 분야의 향수는 교육이 필요한데, 한국의 교육 현실에 비추어 시민 대부분이 순수예술 분야를 접근하는데 편안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음.



<그림 1> 문화향수 수준에 대한 태도

○ 문화향수에 대한 욕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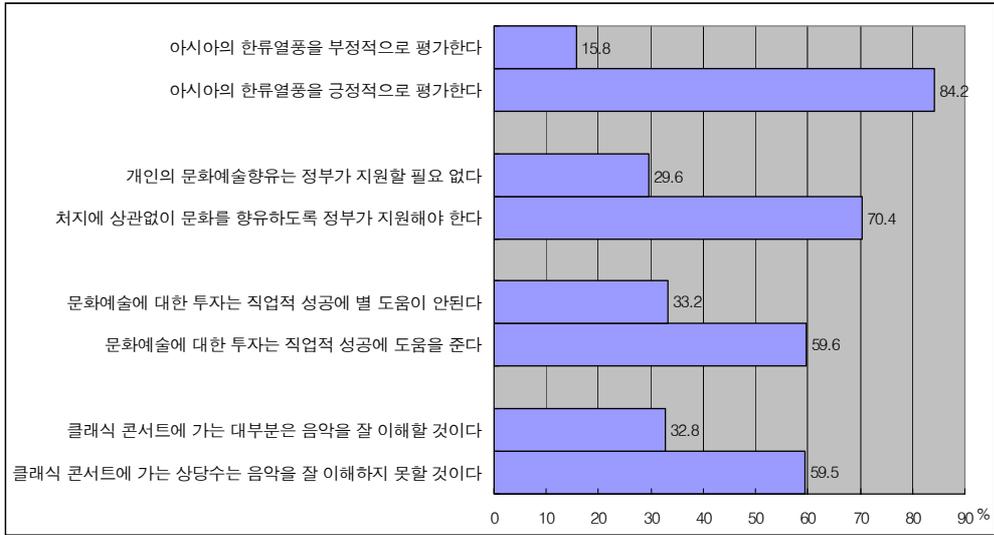
- 문화향수에 대한 욕구는 높은 편임. 예를 들어, “직장을 고를 때 연봉보다는 여유시간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9.2%이며, “남들처럼 문화를 즐기지 못하면 남들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53.0%, “경제적 여유가 생긴다면 다른 것 보다 뮤지컬을 보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이 58.9%로 많은 사람들이 문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향수하고 싶어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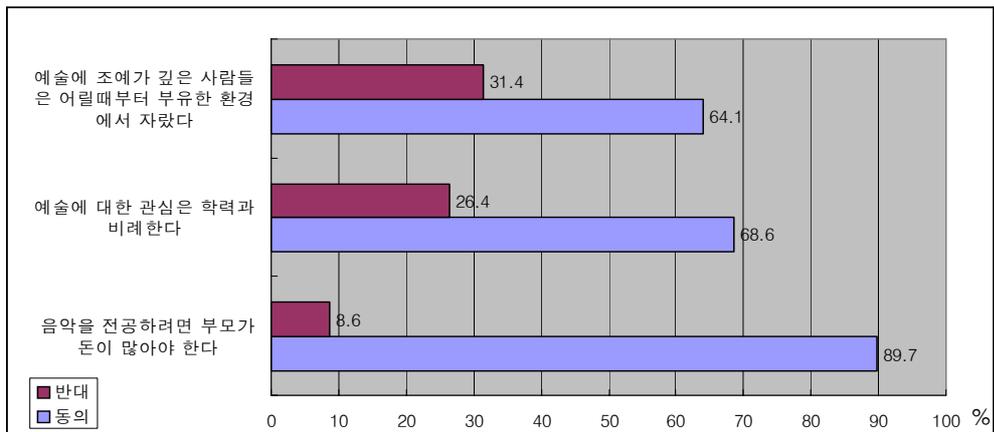
<그림 2> 문화향수에 대한 욕구

○ 문화일반에 대한 태도

- 문화일반에 대한 태도는 복합적이라고 할 수 있음. 먼저, 대다수가 한류열풍을 긍정적이라고 평가한 것(84.2%)이나, 처지에 상관없이 문화를 향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응답한 점(70.4%), 또 문화예술에 대한 투자는 나 자신의 직업적 성공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응답한 점(59.6%)은 대다수가 현재의 문화적 추세와 변화를 수긍하고, 문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정하며,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함.
- 반면에 “클래식 콘서트에 가는 상당수는 음악을 잘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설문에서 59.5%가 동의해,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문화(특히, 순수예술)에 대한 거리감을 가지고 있음을 보임. 우리사회에서 클래식 음악을 즐기기 위해서는 ‘교양’이 있거나 ‘부유’해야 하며, 상당수의 사람들이 음악을 잘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교양있거나 부유해 보이고 싶어 클래식 음악회에 간다는 것임. 일반 사람들은 일부 문화예술 분야의 향수가 과시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인식함.
- 시민들은 문화예술 향수에 있어 사회경제적 계층간에 차이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 “음악을 전공하려면 부모가 돈이 많아야 한다”(89.7%), “예술에 대한 관심은 학력과 비례한다”(68.6%), “예술에 조예가 깊은 사람은 어려서부터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다”(64.1%) 등에 관해 대다수가 동의해 전반적으로 문화예술 향수 수준과 사회경제적 능력 간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음.



<그림 3> 문화 일반에 대한 태도



<그림 4> 문화향수 수준과 사회경제적 능력의 관계

- 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태도에는 개인적인 차원과 사회적 차원이 얽혀진 특성을 보임. 개인은 문화가 자신의 삶에 중요함을 인식하고, 이에 대해 누리고 싶은 욕구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문화향수 수준에 만족하지 못하며, 자신의 문화 향수를 타인과 비교하는 경향을 보임. 그것이 사회적 차원에서는 순수 예술분야에 대한 거리감으로 표출되고, 문화향수에도 사회의 불평등이 반영되고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함. 개인의 문화향수 욕구에 미치지 못하는 사회의 문화 향수 현실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며,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 대응으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시민의 문화예술 향수 정도

○ 공연 및 전시 예술행사 관람 정도

- 시민의 문화예술의 향수 정도는 예술행사에 대한 관람경험으로 알아 볼 수 있음.
- 시민에게 관람경험을 문의한 결과, 일생을 통해 현재까지 한 번이라도 연극을 관람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54.1%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클래식·오페라 공연은 22.0%, 무용 공연은 16.6%로 가장 낮게 나타남. 한편, 평생 공연 및 전시예술 공연을 보지 못한 경우가 26.1%에 달해 상당수가 관람 경험이 없었음.

<표 1> 공연 및 전시 예술행사 관람률(평생)

분 야	전통 예술공연	연극	대중음악 공연	무용 공연	클래식/ 오페라 공연	미술 전시회	뮤지컬	경험없음
관람률(%)	41.4	54.1	45.4	16.6	22.0	46.5	30.7	2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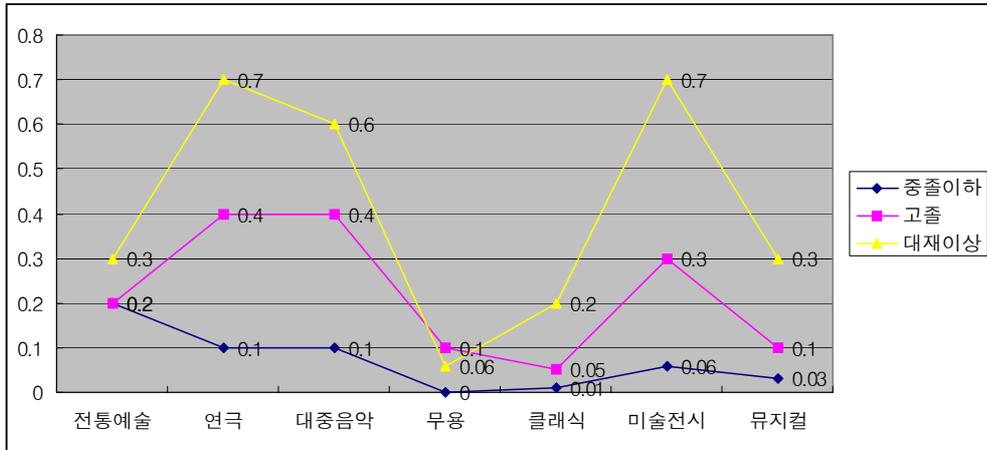
* 관람률은 각 분야별로 평생 한 번 이상 관람한 응답자의 비율을 말함.

- 지난 1년간 공연 및 전시 예술행사 관람횟수를 살펴보면, 전통예술의 경우, 전체의 14.7%, 연극은 24.6%, 대중음악공연은 19.5%가 관람해 본 경험이 있으며, 클래식·오페라 공연의 관람률은 7.5%이고 미술전시회는 23.8%임.
- 전체적으로 볼 때, 관람률은 낮은 편으로 56.4%가 지난 1년간 단 한번의 공연도 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관람률이 높음.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데, 중졸이하에 비해 4년제 대졸이상의 경우 관람률이 연극과 대중음악공연은 3배 가까이, 뮤지컬은 5배 이상, 미술전시회는 8배, 클래식·오페라 공연은 15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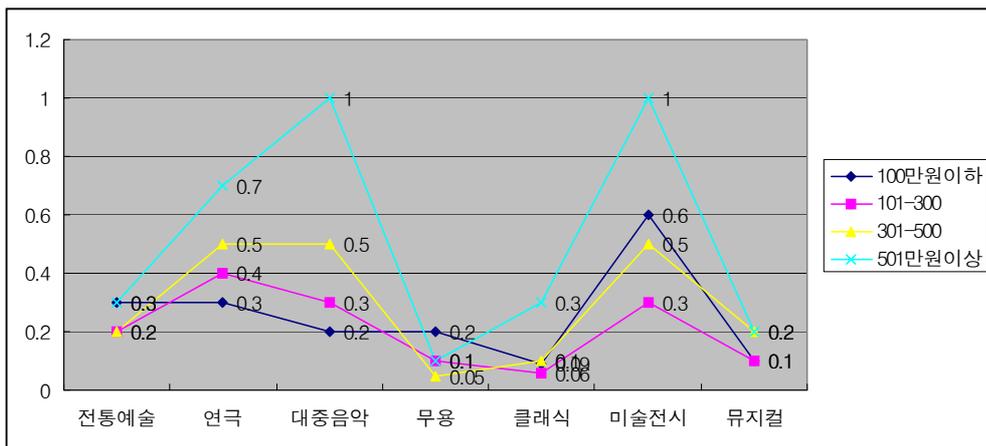
<표 2> 공연 및 전시 예술행사 관람률(지난1년)

분 야	전통 예술공연	연극		대중음악 공연		무용 공연		클래식 오페라 공연		미술 전시회		뮤지컬			
		%	회	%	회	%	회	%	회	%	회	%	회		
전체	43.7%	13.7	0.2	23.6	0.5	19.5	0.4	3.2	0.1	7.5	0.1	23.8	0.5	11.1	0.2

* 관람률은 각 분야별로 지난 1년간 한 번 이상 관람한 응답자의 비율을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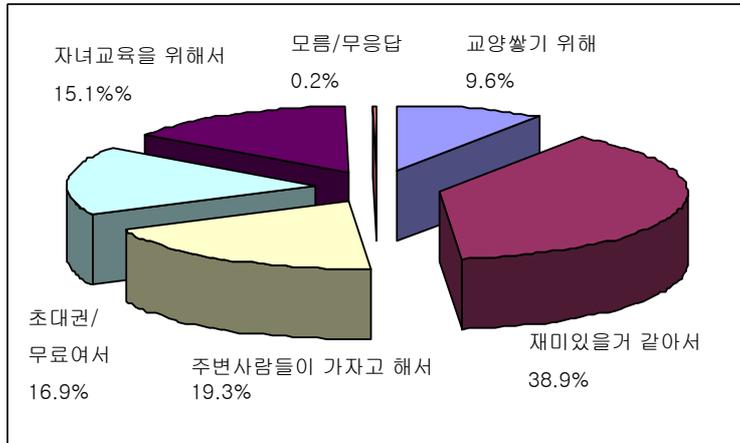
<그림 5> 교육수준별 예술행사 관람횟수(지난1년)



<그림 6> 소득수준별 예술행사 관람횟수(지난1년)

○ 문화예술행사 관람 이유

- 지난 1년간 관람한 예술행사 중 그 예술행사를 관람한 이유에 대해서 문의한 결과, “재미 있을 것 같아서”가 38.9%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주변사람들이 같이 가자고 해서”가 19.3%, “초대권이 생겨서/무료여서”가 16.9%임. 또한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가 15.1%를 차지하고 있음.



<그림 7> 예술행사 관람이유 (사례수 467명)

문화예술 향수의 계층화와 함의

○ 여가생활과 공연 및 전시예술 관람

- 공연 및 전시예술 관람횟수와 여가활동의 성향과 어떤 관계가 있는 지를 보기 위해, 먼저, 여가활동 유형과 공연 및 전시예술 관람횟수를 비교하여 보면, 적극적 유형의 여가를 즐기는 사람들의 관람횟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적극적 유형의 여가를 즐기는 사람들은 그만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공연 및 전시예술도 더 많이 관람할 여건이 되어서 일수도 있음.

<표 3> 여가유형별 공연 및 전시예술 관람횟수

여가유형		사례수	관람횟수
주중	소극	1156	1.67
	적극	144	4.33
주말	소극	879	1.47
	적극	421	2.99

* 여가활동을 조사하여 여가시간에 옥내활동과 휴식을 주로 하는 집단을 소극적으로 분류하였고, 일반유희 활동, 스포츠레저 활동, 영화관람 등을 하는 집단을 적극적 집단으로 분류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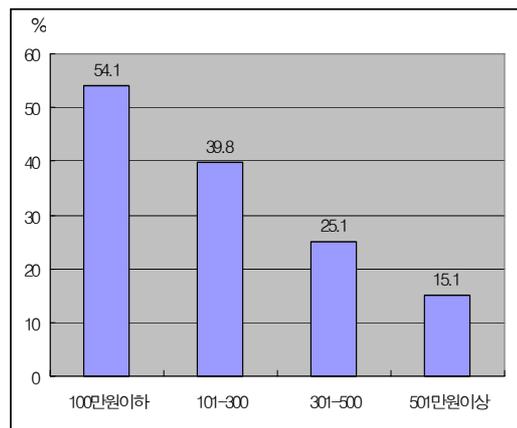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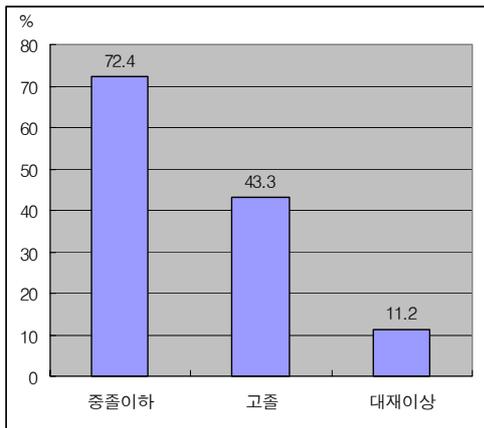
○ 문화관련 지출사항

- 문화예술관련 최대 지출분야(1+2순위)는 "영화관람"(37.1%), "책, 잡지 구입 및 대여"(36.4%), "음반 테이프 및 CD 구입"(21.3%), "비디오테이프 구입 및 대여"(17.7%), "연극관람"(3.1%), "대중음악·연예소 관람"(2.9%), "각종 전시회 관람"(1.2%), "예술관련 교육비/강습비"(0.7%), "전통예술관람"(0.5%), "서양고전음악회 관람"(0.3%), "무용관람"(0.2%) 순으로 나타났으며 "해당사항없음"이 32.1%로 높은 비율을 차지함.
- 주로 영화, 서적, 음반, 비디오테이프 등 미디어 문화와 관련한 지출이 많으며 공연예술에 대한 지출은 매우 낮음. 또한 "해당사항없음"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높은 편인데, 이것은 문화예술과 관련하여 거의 지출을 하지 않는 사람이 1/3정도 됨을 의미함.
- 중졸이하의 경우는 72.4%가, 소득100만원 이하의 경우는 54.1%가 문화예술관련 지출을 거의 하지 않음.

<표 4> 문화예술관련 최대지출분야(1+2순위)

구분	영화관람	책, 잡지 구입/대여	음반 테이프 및 CD 구입	비디오 테이프 구입/대여	연극 관람	대중음악, 연예관람	각종 전시회 관람	예술관련 교육/ 강습	기타공연 관람/기타	해당사항 없음
비율 (%)	37.1	36.4	21.3	17.7	3.1	2.9	1.2	0.7	1.1	32.1

* 각 비율은 분야별로 1순위 또는 2순위로 선택한 응답자의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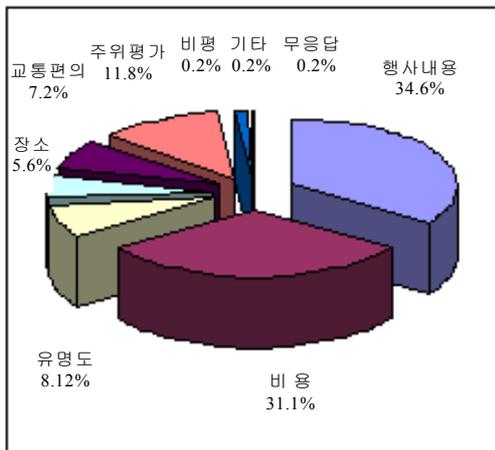


<그림 8> 교육수준별 문화예술관련 "지출없음" 비율 <그림 9> 소득수준별 문화예술관련 "지출없음"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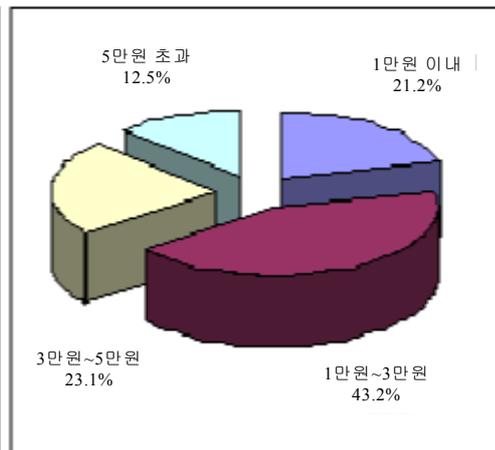
- 지난 1년간 공연 및 전시예술을 한번이라도 본적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소득 100만원 이하의 경우는 65.7%, 소득 101~300만원의 경우는 62.8%가 한번도 본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소득 501만원 이상의 경우는 37.2%만이 한번도 본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계층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예술행사 관람과 비용

- 예술행사 관람시 고려하는 요인으로는 “예술행사의 내용”(34.6%)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비용”(31.1%), “주위 사람들의 평가”(11.8%)임.
- 예술행사에 대해 지불할 수 있는 최대금액으로 21.2%가 1만원 이내, 43.2%가 1만원~3만원 사이, 23.1%가 3만원~5만원 사이라고 응답하여 전체의 87.5%가 5만원 이내 지불용의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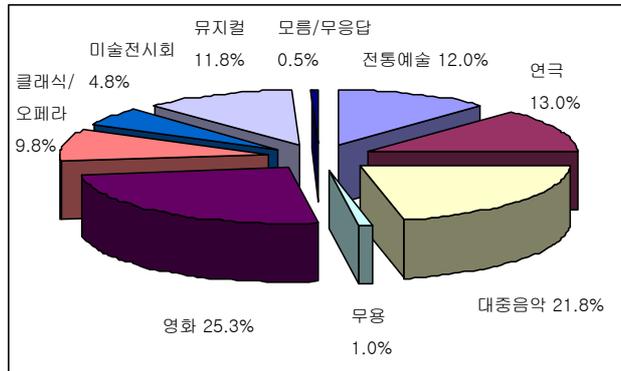
<그림 10> 예술행사 관람시 고려요인



<그림 11> 예술행사 지불 가능금액

○ 관람 희망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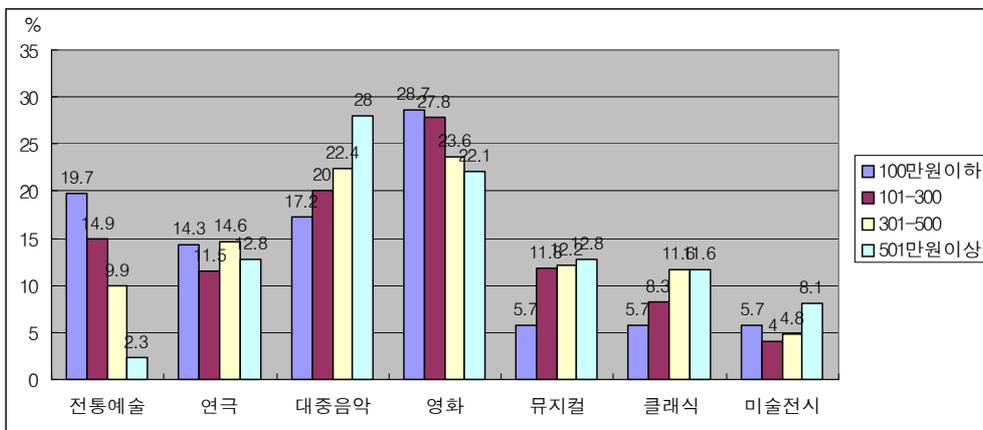
- 향후 관람하고 싶은 예술행사에 대해서는 “영화”(25.3%), “대중음악공연”(21.8%), “연극”(13.0%)의 순으로 나타나 대중예술에 대한 욕구가 더 높음을 알 수 있음.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전통예술과 영화에 대한 욕구는 높고 클래식/오페라공연과 뮤지컬에 대한 욕구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200만원 이하는 전통예술공연에 대한 욕구가 높고 반면에 클래식/오페라공연과 뮤지컬에 대한 욕구는 낮았음.



<그림 12> 향후 관람 희망 예술행사



<그림 13> 교육수준별 향후 관람하고 싶은 예술행사



<그림 14> 소득수준별 향후 관람하고 싶은 예술행사

○ 문화 향수의 계층화의 함의

- 시민들의 문화향수의 양태를 보면 문화 향수의 계층화된 특성을 보여줌. 개인적인 속성으로 적극적이거나, 아니면 소극적이거나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교육적 배경 및 경제력과 함께 예술 분야의 선호를 나타내게 함.
- 특정 예술 분야의 선호는 특정 계층에 연관되는 경우가 있음. 전통예술분야나 클래식이나 오페라의 경우는 이러한 면이 두드러짐. 그런데 문화예술은 그 자체가 계층적 현상을 의미하지 않음. 단지 그것을 선호하는 층으로 인해 계층적인 효과가 나타남. 이러한 것으로 인해 문화향수의 욕구는 높으나 문화향수의 수준은 전반적으로 낮은 상황에서 문화향수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 초래될 수 있음.
- 예술문화영역에서 특히 소외된 계층은 저소득층이라고 할 수 있음. 문화 분야에 대한 지출은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에 비례하는 특성을 보여줌. 문화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에게 예술관련 지출에 대한 비용을 공공 분야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대중예술분야에 대한 시민들의 향수수준이 높은 것은 그것이 단지 대중적이라는 이유이기 보다는 대중 예술분야를 향수하는데 비용이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불할 수 있는 비용의 영역 안에 있기 때문임.
-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에서 강조할 것은 많은 사람들이 저렴한 비용에 수준 높은 문화를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것임. 이 부분에 공공적인 지원이 강조되어야 할 것임.

조권중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02-2149-1256
kjchoh@sdi.re.kr